명품 바람타고 매출 잡자…빨라진 백화점 '리오프닝' 시계

광주신세계 29일까지 유명 선글라스 할인전…최대 30%
롯데백화점 '해외명품 브랜드 시즌 오프' 할인 행사 진행

코로나19로 부진했던 백화점 업계가 기지개를 켜는 '리오프닝'(Reopening)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올해 1~4월 누계 매출액은 59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542억원)보다 9.4%(51억원) 증가했다고 최근 공시했다.

지난달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됐던 경제활동이 재개(리오프닝)되면서 유통업계는 '가정의 달'과 행락철을 맞아 각종 기획행사를 쏟아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지 한 달을 맞아 그동안 굳게 닫혔던 고객 지갑을 열기 위한 할인전이 마련됐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29일까지 본관 1층 행사장에서 따가운 햇볕을 피하고 멋을 낼 수 있는 선글라스 할인전을 진행한다.

참여 브랜드는 페라가모, 구찌, 톰포드, 디올 등이다. 레이벤 제품은 20% 할인 가격에 만날 수 있고 듀퐁, 비비안 웨스트우드 신상품은 최대 30% 할인 받을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가전 할인 행사를 펼친다.

먼저 오는 31일까지 위니아 딤채 에어컨 리퍼브(반품 또는 전시품) 상품을 정상가보다 할인 판매한다.

오는 22일까지는 일부 브랜드 선풍기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같은 날까지 삼성전자 '무풍 비스포크 에어컨'을 구입한 고객에게는 공기청정기를 증정한다.

이달 말까지 LG전자 휘센타워를 구매하는 고객은 최대 80만원에 달하는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하늘 여행길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19일까지 제주여행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특산물 판매전을 진행한다.

제주 우도의 명물 땅콩과자와 가파도 보리건빵, 청귤 주스 등을 점포 지하 1층 푸드에비뉴에서 만날 수 있다.

광주점을 포함한 전국 롯데백화점은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해외명품 브랜드 시즌 오프' 할인 행사를 연다.

8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최대 50% 할인율을 적용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18일 광주신세계 직원들이 본관 1층 행사장에서 오는 29일까지 최대 30% 할인 판매하는 유명 선글라스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이마트, 피코크 맛평가단 모집
상품 개발에 고객 의견 반영

이마트는 자체 가정간편식 브랜드 '피코크' 상품 개발에 참여할 맛 평가단 '피코크 테이스터' 1기를 오는 6월10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다음달 10일까지 이마트 모바일 앱 클럽 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는 총 900명이 선발된다.

이마트는 앞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맛 평가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평가단에 뽑힌 900명은 피코크 대표 상품 5종이 담긴 보냉가방을 받게 된다.

이들 상품을 맛보고 평가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피코크 교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마트는 이들의 의견을 상품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평가 의견들은 점포 광고물 등을 통해 소개된다.

이마트는 평가단 900명 중 우수 설문자 25명을 뽑아 '피코크 마스터' 자격을 부여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피코크 마스터로 선정된 25인은 맛 평가 등 상품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 연중 피코크 할인권도 받게 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선풍기로 더위 날려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이 9층 수입 가전 브랜드 '헬러' 매장에서 이번 주 최고기온이 30도에 가까운 무더운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선풍기와 서큘레이터 등 소형 냉방가전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한국 수산식품, 독일 MZ세대 소비자 만났다

aT, 독일 한국문화축제 참가
김·어묵 등 수산식품 홍보관 운영

한국 우수 수산식품들이 독일 MZ세대 소비자들을 만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K-팝 플렉스 연계 한국문화축제'에 참가해 홍보관을 열어 한국의 우수 수산식품을 홍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개 아이돌 그룹이 참가한 대규모 K-팝 콘서트와 연계해 열렸다. 행사장에는 이틀 동안 6만여 명이 다녀갔다.

aT는 한국관광공사와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이 주최한 한국문화축제 행사장에 한국 수산식품 홍보관을 운영했다.

한국 수산식품 홍보관은 유럽 MZ세대를 대상으로 김, 참치, 어묵 등 한국 수산식품의 매력을 알렸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육류 위주 식단으로 해산물 소비가 높지 않으나, 최근 건강한 식생활과 채식주의 유행에 힘입어 김과 같은 해초류와 생선 등 수산식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국 스낵(간식)김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aT는 관객들을 대상으로 김과 고추참치를 활용한 미니 주먹밥, 고추참치 샌드위치, 어묵바, 어묵볶음 썸머롤, 해초 샐러드 등 간편한 수산식품(씨푸드) 시식행사를 진행했다. 이틀간 진행된 시식행사에는 8000여 명이 참여했다. 한국 수산식품 시식메뉴 조리법과 제품 구매처를 담은 엽서는 순식간에 소진됐다고 aT는 설명했다.

aT 관계자는 "시식에 참여한 유럽 젊은층들은 한국의 매운 맛을 담은 고추참치를 처음 맛보며 호응을 보내고 어묵에 대한 호평 또한 잇따랐다"며 "현지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스낵김에 대한 반응은 여전히 뜨거웠다"고 말했다.

기노선 aT 수출식품이사는 "그동안 유럽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은 외식업계 중심 기업대 기업(B2B) 형태로 거래가 이뤄졌으나, 이번 행사로 한국 수산식품에 대한 현지인들의 수요를 확인했다"며 "앞으로 한국 수산식품이 유럽 시장과 현지 소비자들을 공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장성 토지(매매 분양)	상무지구(상가매매)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중심상업지역(메가박스앞) 시세 -> 9억 급매가 -> 6억 (총분양 140평) (보 3천, 월 350만, 융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흥,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광주	광산구 삼거동(임야)▶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1억4천 (5/4)
	동구 지산동(농지)▶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4억1천 (5/4)
	북구 생용동(근린주택)▶ 감정가 3억 -> 최저가 1억 7천 (5/12)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5/12)
	서구 화정동(주택)▶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7천 (5/18)
	북구 용봉동(주택)▶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1천 (5/26)
	동구 운림동(근린주택)▶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전남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5/11)
	담양군 창평면(주택)▶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5/18)
	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감정가 130억 -> 최저가 31억 (5/23)
	목포시 상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8천 -> 최저가 4억8천 (5/23)
시외	충남 서천군(근린주택)▶감정가 9억2천 -> 최저가 2억2천 (5/3)
	전북 군산시(근린상가)▶감정가 25억 -> 최저가 4억2천(5/23)

010-6670-9800